집은 없어도 車는 있어야

월세살이 10가구 중 4가구 자동차 보유

월세살이를 하면서도 자동차를 갖고 있는 가구가 10가구 중 4가구 꼴로 집계됐고 전세가구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가계자산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가구를 주거 형태별로 분류했을 때 월세가구의 자동차 보유율은 38.2%로 10가구 중 4가구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에 살면서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6%였고, 자기집에 사는 가구의 자동차 보유율은 66.8%로 조사됐다.

가구 소득별로 자동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20%) 중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19.2%로 5가구 중 1가구 꼴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상위인 소득 2분위 가구의 자동차 보유율은 44.7%였고, 3분위 65.0%, 4분위 79.1%,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상위 20%) 88.9% 등으로 집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전남 '천일염' 연내 식품 인정

'염 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남지역 갯벌에서 생산된 천일염이 올해 안에 식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일염은 종전까지 광물로 분류되어 왔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천일염을 식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염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예고됨으로써 이르면 금년 중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될 경우 대형 식품가공회사에서 천일염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길이 열림으로써 천일염 대량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시에도 공업용 광물로만 판매하던 때보다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남도는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천일염 제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관련업무를 전담할 '태스크포스'를 구성, 천일염 산업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시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낮日만평

- 김종두

참말로 위기는 위기다

"中·日 관광객 잡아라"

5월 노동절·황금연휴 기간 대거방한 예상

광주시·전남도 현지 설명회 등 판촉 활동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관광설명회를 갖는다. 시·도는 다음 달 중국 상해 및 주변 도시, 일본 나고야·동경 등에서 광주·전남지역을 소개하는 단기 관광상품 홍보에 나선다.

특히 시·도는 중국의 최대 연휴인 노동절(5월1일~5월7일) 기간과 일본의 황금연휴(4월29일~5월5일) 기간을 겨냥해 관광객들이 광주·전남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판촉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관광협회는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7일간) 중국 상해 및 인근의 남창시, 무석시 등을 방문해 관광교류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중국 방문은 광주공항 유일의 국제항공 노선인 광주~상해간 정기노선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방문 지역 관광 관련 기관·단체, 여행업계,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관광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시·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국인들에게 광주·전남지역을 인상깊은 관광지로서 인식시킴과 동시에 '2008년 광주·전남 방문의 해' 등을 비롯해 광주가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의 고향이자 중국이 월드컵 본선에 처녀 출전해 첫 게임을 치른 곳이라는 점 등 중국인들의 관심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홍보에 가미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일본지역에 대한 광주·전남 공동 관광설명회는 동경·오사카·나고야 등을 대상으로 4월 초에 추진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광주·전남 공동 관광설명회는 광주시 주관으로 치러지며, 하반기 공동설명회는 전남 주관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시·도는 이번 공동 관광설명회의 성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는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 공동 관광설명회로 확대하는 한편 행사는 3개 시·도가 번갈아 주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의 관광은 지리적 상황을 감안할 경우 접근성이 양호한 중국 도시와 일본 도시를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관광상품도 광주·전남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무등산 공원 관리는 잘 합니까?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김성숙) 소속 광주시의원들이 13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과 함께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 관계자들로부터 공원 관리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광주시의회제공〉

주 일본 대사	유명환
주 러시아 대사	이규형
주 독일 대사	최정일
주 인도 대사	백영선
주 캐나다 대사	김수동

정부는 13일 주 일본 대사에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제1차관, 주 러시아 대사에 이규형 전 외교부 제2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또 주 독일대사에 최정일 전 주인도대사, 주 인도대사에 백영선 전 외교부 의전장, 주 캐나다 대사에 김수동 전 외교부 기획관리실장을 임명됐다.

이와 함께 주 제네바 대사에는 이성주 전 도하개발어젠다(DDD) 협상정부대표, 주 덴마크 대사에 이명수 전 농림부 차관, 주 싱가포르 대사에 김중근 전 통상교섭조정관, 주 스위스 대사에 장철균 전 주라오스 대사, 주 이라크 대사에 하찬호 전 국제표기·명칭전담대사, 주 체코대사에 조성용 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연합뉴스

전군표 국세청장 광주청 방문

전군표 국세청장은 15~16일 광주지방국세청과 전주·순천세무서를 방문한다.

전 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선 직원들에게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삼성·LG전자 면접 '진짜영어실력' 본다

토플 시험성적 보다 원어민과 대화 등 비중 높여

영어 시험 성적은 좋지만 원어민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암기식 영어로는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회사가 최근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 면접의 비중과 난이도를 대폭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대졸사원 공채부터 지원자들이 성적표에 써 낸 성적만큼 진짜 영어 실력이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토익, 토플 등 영어 공증 기관의 시험 성적을 점수대별로 6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수준에 맞는 영어 질문을 준비해 놓는 영어면접 문제은행제를 본격 도입한다.

만약 900점~950점대 성적표를 낸 응시자가 막상 영어면접을 했는데 말하는 폼이 시원치 않다면 그보다 낮은 단계의 질문을 받게 되고, 이 응시자의 영어 실력이 결국 700점대 레벨로 평가된다면 그 응시자는 토익 항목에서 700점대 레벨에 해당하는 가점만 받게 된다.

역으로 토익 점수는 800점대 레벨이지만 회화 능력이 950점 이상 수준을 넘을 정도로 유창하다면 그 응시생은 950점 이상 레벨의 토익 가점을 얻는다.

삼성전자도 토익, 토플 등 시험 성적은 공채 지원 자격을 판단하는 자료로만 쓰고 있으며, 작년 하반기 공채부터는 영어 면접에 형편없는 점수를 받은 응시자는 아예 탈락시키는 등 영어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오히려 2년 전부터는 한자 관련 공인 기관의 성적표를 제출하면 가점을 주고 있다. 반면 토익, 토플 성적표는 전형과정에 점수로 반영되지 않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실질적인 영어 실력을 점검하기 위해 영어면접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학생 절반 "취업 사교육"

연간 270만원씩 들여 학원 수강

대학생 중 절반 가량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학원 수강 등 과외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평균 207만원씩을 취업 사교육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온라인 리크루팅 업체 잡코리아(www.jobkorea.co.kr)에 따르면 6-10일 국내 4년제 대학 2~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 1천774명을 상대로 '대학생 취업사교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 중 55.8%가 '현재 취업 관련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취업 사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1년간 평균 207만원을 비용으로 쓰고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4학년이 평균 246만원, 3학년 183만원, 2학년 156만원 순이었다.

이들이 수강중인 사교육(복수응답)은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관련 학원 수강(47.9%), 영어회화(47.3%), 자격증 취득학습(40.6%), IT·컴퓨터관련 교육(26.1%), 직무관련 실무학습(23.0%), 국가고시 등 각종 시험대비 학습(19.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취업관련 사교육비 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스스로 번 돈과 부모님에게 받은 돈을 합쳐 충당한다'(45.6%)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스스로 벌어서'(27.5%), '부모님께 받아서'(19.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67.5%)과 광주·전남(60.7%), 대구·경북(56.2%) 지역 대학 학생들이 취업 관련 과외학습에 적극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前國會議員
二〇〇七年
宿患으로 別世하셨기에 訃告하나이다.

조선대학교병원장례식장(062-220-3352~3)
二〇〇七年 三月 十五日 午前 九時
조선대학교병원장례식장(062-220-3352~3)
全南潭陽郡潭陽邑鄕校里廣洞先塋下

喪主 鞠瑄根
發靷日時 三月 十三日 午前 二時 五十分
發靷場所 大夫人 金敬順女史께서
葬地 全南潭陽郡潭陽邑鄕校里廣洞先塋下

孫女 孫女 孫女